

# 광주시 어르신 문해교육 확산 나선다

## 비대면 학습업 '비그플' 제작 보급 디지털 문해 시화전·골든벨 행사도

광주시가 학습 기회를 놓친 성인 비문해 시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강화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와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 비대면 문해교육 학습 플랫폼인 '비그플' (비문해자 그들을 위한 플랫폼) 앱을 개발·배포하고 있다.

'비그플'에는 초·중등과정, 금융·정보·안전 등 생활문해 등 900여 개 문항이 탑재돼 있으며, 고령자 학습자를 위한 스마트폰 학습 게임과 지역 내

문해 교육기관 등도 확산할 수 있다.

광주시는 '비그플' 이용자 확산을 위해 디지털 문해교육 시범 운영기관 3곳에 비그플 및 디지털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문해 시화전과 골든벨 행사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검정고시 및 기초 문해, 생활 문해 등 현장 문해교육 강화를 목표로 지역 문해교육기관 5곳을 공모 지원하는 한편 문해교육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수 교육요원을 문해 교육기관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광주시의 성인 비문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광주시가 지원하는 비대면교육에는 총 714명이 참여했으며, 비대면 학습 플랫폼인 '비그플'

앱에도 5만 5000여 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시 문해교육 학습자 284명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내용과 교육 환경, 프로그램 운영에서 94.4점을 받을 정도로 교육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문해교육은 지역 문해교육 거점기관인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교육 프로그램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600-5222)이나 광주시 교육청소년과(613-1641)로 문의하면 된다.

유근중 광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포용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대면 또는 비대면 문해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8세 이하 책 꾸러미 신청하세요

### 광주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23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광주시립도서관(무등, 사직, 산수)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 지원 사업이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 문화 운동인 2022년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을 23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출생부터 8세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책 꾸러미(책꾸러미 가방, 도서 2권, 가이드 북) 무상 배부 및 책놀이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접수는 10일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아기 수첩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4월 1일부터 각 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령할 수 있다. 단 도서관별로 선착순으로 총 810명에게 배부한다.

백호승 광주시 시립도서관장은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독서 생활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도서관 어린이실(무등 613-7747, 사직 613-7772, 산수 613-78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중소사업장 임산부

#### 맘편한 패키지 신청하세요 전용의자·열달꾸러미 지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중소사업장 임산부의 배려문화 정착과 아이 낳아 키우기 맘편한 광주만들기의 하나로 '임산부 맘편한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산부 맘편한 패키지'는 관내 소재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산부에게 임산부 체형에 맞춰 접이 조절이 가능한 임산부 전용의자 무료 대여하고, 임산부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임산부 직장생활꾸러미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모·부싱 노무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전용의자는 출산후가 전까지 무료로 대여되며, 기존 업무용 의자보다 의자 폭이 넓고 등받이가 180도까지 확장돼 발을 뻗을 수 있는 등 임산부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 제작한 특수 의자다. 또 침대형 틸트시스템이 장착돼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간이침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임산부 직장생활꾸러미는 임산부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전자파방지 담요, 접이용 발받침대, 임산부 배앓이 방지 배보호대, 스트레스 완화 손인형, 즐거운 문구용품, 임산부 사무실 보호패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임산부 직장인은 일터에서 권리보장을 위한 직장맘의 권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등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이용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소방 전기자동차 사고 대응 특별구조 교육·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에서 전기자동차 사고 대응 특별구조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 광주도시철도,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 2020년부터 2년간 50% 감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역구내 임대시설 등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2020년부터 2년간 2억 1000만원 규모의 임대료 등을 감면해왔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임대료 절반인 5000여만원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지역 업체와의 상생 마케팅, 광주상생가드를 비롯한 지역 화폐 활성화 등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영업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나누는 마음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섰다"며 "상생과 소통의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자가전기통신설비 450곳 전수검사

### 광주시 10월까지 매월 검사 설치 상태·적정운영 등 점검

광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6개 기관 450곳에 대해 설치 상태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전수 검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에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등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사태 통신의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광주시도시철도공사, 광주제2순환도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치목적 외 사용 여부, 타 설

비와의 무단접속 연계 여부, 설치 신고자와 사용자 일치 여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통신설비의 현황 및 설치 신고내역 등이다.

또 전용 통신기계의 설치 및 출입제한, 옥외설비의 풍해대책 마련, 안전사고 대비한 화재경보 및 소화설비 설치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검사에 앞서 매월 초까지 각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오는 10월까지 매월 현장 검사를 실시해 경미한 위반 사례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광주시 정보화담당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상태와 기술기준 안전성, 신뢰성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 검사"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코로나 대응인력 숲치유프로그램 지원 확대

### 광주시, 나주숲체원과 업무협약

광주시가 코로나19 몸과 마음이 지친 재난대응인력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숲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국립나주숲체원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소진관리를 위한 숲치유프로그램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 맞춤형 대면·비대면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심신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숲 치유프로그램은 ▲목언보행 ▲스트레칭 및

명상 ▲행잉플랜트 만들기 등 직접 체험 프로그램과 ▲쪽 염색을 통한 재생 베개 만들기 세트를 택배로 배송해주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20일 "명상, 숲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인력이 잠시나마 쉬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숲체원을 비롯한 심리지원 협력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마음건강 회복과 심리방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